

#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강 정 희\*\*

## 1. 연구 목적

제주방언은 여러 분야에서 국어사적 정보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동명사 문들이 그 중의 하나다. 제주방언은 문장이 매우 짧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접속 어미와 선어말 어미, 심지어 문장 끝에서 나타난다.<sup>1)</sup> 그것은 아마도 이들 문장 구성 성분 뒤에 분포된 이른 바 기원적 동명사 어미로 알려진 '-ㅁ, -ㄴ, -ㅇ'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연구는 제주방언의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특히 서술어와 의존 명사 구문에 분포하는 동명사 어미 '-ㅁ, -ㄴ, -ㄹ, -ㅇ' 중에서 '-ㅁ, -ㄴ'을 중심으로 이들 동명사 어미가 관여하는 구문의 문법화 과정을 국어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에 기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KRF-2005 선도연구자 지원사업 과제번호 A00322)

이 논문을 꼼꼼히 읽고 심사해주신 익명의 3분 심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남대학교 교수

- 1) ①이디 완 받 간 ㄹ르난(여기 와서 보고 가서 말하니까)  
②이디 왕 방 강 ㄹ르라(여기 와서 보고 가서 말하라)  
③ 지다리가 줌을 잠선/풀밭디 스듬서 들구 우렘선 느 무사 우렘던' 드르난(베추리가 잠을 자고 있어서/풀밭에 서있으면서 들구 울고 있어서 '너 왜 울고 있니?'고 물으니까)(진, 2008,149)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언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성분들의 길이는 최대한 절제된 즉 서술적이기 보다는 단위성의 인상이 깊다. 이러한 인상은 각 문장 성분 뒤에 결합된 '-ㄴ, -ㅇ'이 기원적 동명사 어미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문헌어를 대상으로 한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는 주로 ‘-ㄷ’ 동명사 구문의 변화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 이유는 고대국어의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 -ㄹ, -ㄱ’ 중에서 ‘-ㄴ, -ㄹ’은 중세국어 이전 단계에서 이미 용언의 관형형 어미로 ‘탈 범주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ㄱ’만이 동명사 어미로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의 동명사 어미들의 변화 단계가 21세기 현재 제주방언에서 그대로 관찰되고 있다. 즉 관형형 어미와 접속 어미 그리고 통합형 선 어말 어미 체계 안에서 ‘상(Aspect)’ 표지로 재분석되고 있는 ‘-ㄴ, -ㄹ’은 원래의 동명사 어미의 통사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한영균, 1984, 강정희, 1987)가 있지만 ‘-ㄱ’은 문헌어의 ‘-ㄱ’과 동일하게 동명사 어미로서의 분포와 통사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들은 현재 이 방언의 젊은 층이나 공동어 화자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게 들리는 이 방언의 보수형을 사용하는 언중들에서 쉽게 채록할 수 있는 ‘-ㄱ’ 동명사 어미들이 분포되어 있는 발화들이다.

- 1) 비석도 사름하는 일광 벨 다르미(?다르기/다른 것) 어신 건디  
(비석도 사름하는 일과 벨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진2008 :296)
- 2) 아무라도 요 쫄 얼마나 되믄(?되기/되는 것)을 아는 사름신디  
(아무라도 요 쫄 얼마나 되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진 2008:184)
- 3) (사람들아) 용이 하늘로 느랑 오름(?오르기/오르는 것)만 알지 말라.  
(용이 하늘로 날아서 오르는 것만 알지 말라)(진2008:273)
- 4) 독 지방 머그미(?먹기/먹는 것) 조탱들.... 우리 지주에서 개장국 머그  
믄(먹기/먹는 것) 이 목스가 체암 시작호엿쟁 힘네다  
(닭 잡아먹는 것이 좋다고들.. 제주에서 개장국 먹기/먹는 것은 이  
목사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합니다.(진2008:203)
- 5) 앓(알기/?아는 것)도 알서라!(알고있구나/알고 있더라)
- 6) 먹음을(먹기/?먹는 것을) 흐나, 배틈을(빨기/?빨는 것을) 흐나 허주만
- 7) 그 후로 얻어먹음(먹기/-ㄴ 것/)을 설러비엿수다. 얻어 먹음(먹기/-  
ㄴ 것)도 운이 좋아사...
- 8) 두리가 드투미(?다투기/?다투는 것) 되엿수다(진2008:250)

- 9) 서로 의 조케 살단 이젠 구지미(?긱기/?구진 깃) 생겼수다(진2008 : 222)  
 10) 숨이 안 떨어질/진 뿐이주, 죽음이나 매 한 가지랏주.(강, 2002)  
 (숨이 안 떨어진 것뿐/졌을 뿐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였어)

1)-10)은 ‘-기’ 명사화 또는 ‘-ㄴ 것’의 의존 명사 구문으로 대체되는 ‘-ㄱ’ 명사화 구문이다. 1)-4)는 ‘-기’ 명사화보다는 의존 명사 ‘-ㄴ 것’ 구문이 자연스럽고 5) 6)은 ‘-기’ 명사화가 자연스럽고, 7)은 두 구조 다 자연스럽다. 그러나 8) 9)는 ‘-기’나 ‘-ㄴ 것’ 구조 모두 어색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이 방언에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파생명사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2)</sup> 그리고 의존 명사 구문의 모습을 보이는 10)은 동명사 어미 ‘-ㄴ, -ㄱ’이 관여하는 통사 구조의 변화 방향을 암시해준다.

즉 예문 10)에서 선행문의 ‘떨어지+ㄱ/ㄴ 뿐’은 현대 국어에서 생산성이 높은 ‘-을/ㄴ 뿐’구성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후행문의 ‘죽음이나 매 한 가지’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현대 국어 화자들에게는 ‘떨어지+ㄱ/ㄴ’은 ‘떨어진 것’, 후행문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의존 명사 ‘것’에 의한 관형화 보문인 ‘-ㄴ 것’으로 대체했을 때 더 자연스럽다(권재일 1998:236-7)

따라서 이 연구는 이 방언의 동명사 어미 ‘-ㄴ, -ㄱ’이 관여하는 발화들을 중심으로 이 방언의 문법 체계의 안에서 일어난 통사 구조의 문법화 양상을 설명할 것이다.

## 2. 연구사 검토

고대국어의 동명사 어미<sup>3)</sup> ‘-ㄱ, -ㄴ, -ㄷ’에 대하여 가장 쉽게 우리들에게

2) 이 방언의 ‘-ㄱ’, ‘-기’ 명사화 어미와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통합에 대한 통사. 의 미론적 제약은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 밝혀진 제약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차이도 발견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방언 화자들의 인식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소개한 업적은 이기문(1972)이다. 이 업적은 국어사 연구의 필독서로서 국어의 계통을 알타이 제어와 문법 대응에서 고대국어에 동명사 어미 '-ㅁ, -ㄴ, -ㄷ'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다. 이 업적에서 이 동명사 어미가 명사문 중심에서 동사문 중심으로 탈 범주화한 시기의 중세국어 모습에서 이미 시상 표시 형태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동명사 '-ㄷ' 경우 '-ㅁ> -기'로의 대체 시기를 근대국어 시기로 잡고 있다. 채완(1979)은 근대국어에서 '-ㅁ> -기'가 현대국어에서 일부분은 다시 이전 단계인 '-ㅁ' 동명사문과 '-기' 동명사문의 시기의 모습으로 회기한 예들을 문헌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이 업적은 중세의 '-음'이 18세기에 '-기'로 되었다가 다시 '-음'으로 돌아간 현상에 대한 어떤 규칙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규칙을 향한 재정비"<sup>4)</sup>로 추측하고 있다.

권재일(1998)은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음' 명사화나 '-기' 명사화 구성은

- 3) 기원적인 동명사 어미들에 대한 국어 문법사적인 연구는 매우 많지만 본 연구에 서는 대표적인 연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 4)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근대국어 이전 시기부터 이미 '-ㅁ / 음' 동명사 어미가 '-기(-디) -기'로 쉽게 대체되기 시작한 이유를 먼저 생각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필자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어형 선택상의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즉 '-ㅁ' 동명사 어미는 선행 요소의 음운 환경에 따라 이형태인 '-음'을 가진다. 그러나 '-기'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언중들에게는 동일한 통사 기능을 하면서 선택 제약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어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ㅁ> -기(-디) -기'로의 교체가 탄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 필자의 이러한 짐작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서 인과 구문에 관여하는 접속어 미 '-아서/어서'와 '-니까'의 선택 태도에서도 관찰된다. 즉 초급 단계의 외국인 들은 인과의 접속 어미 '-아서/어서'와 '-니까' 중에서 '-니까'를 선호한다. 즉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규칙을 적용받는 이형태들인 '-아서/어서'의 선택은 그러한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니까'의 선택에 비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형 선택상의 부담이 근대 국어 시기의 언중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이형태들인 '-ㅁ / 음'과 '-기'의 선택에 작용이 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된 '-기'가 다시 '-ㅁ / 음'으로의 회기에는 본 방안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나타나는 언중들의 인식작용에서 암시 받을 수 있는 것에 유추한다면 '-ㅁ'과 '-기'의 의미 기능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명사 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 명사 구문이 더 자연스러운 실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명사화 구성이 관형절을 이끄는 의존 명사 구문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방언의 의문법 체계 안에 존재하는 ‘-ㄴ, -ㄹ, -ㄱ’이 고대국어의 동명사 어미라는 사실을 밝힌 업적은 한영균(1984)이 최초다. 이 연구는 이 방언의 의문법, 인용법, 그리고 복합어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ㄴ, -ㄹ, -ㄱ’을 이 방언이 보여주고 있는 중세국어 시기 이전의 명사문의 흔적인 ‘체언+의문첨사 ‘-가/고’에 근거하여 의문법 종결어미 ‘-ㄴ디, -ㄹ디, -ㄱ디’에 보이는 ‘-ㄴ, -ㄹ, -ㄱ’을 ‘동명사+명사’의 구성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의문법 종결어미에 통합되어있는 ‘-ㄴ, -ㄹ, -ㄱ’의 정체가 기원적 동명사이며 이들의 통사 기능은 문장 상당 어구를 명사화하는 ‘부가 명사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업적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이 방언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ㄴ도 앞의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남은 문제로서 이 방언의 복합어 - ‘벼름 구덕, 벨 후립소리, 벗어진동산, (민대가리 동산, 민동산)뿔망텅이(메고 다니는 망텅이) 등 -형성에 나타나는 ‘-ㄱ, -ㄴ, -ㄹ’의 기능이 현대국어의 관형구조에서 나타나는 ‘-ㄴ, -ㄹ’도 명사화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그 구조도 제주 방언이 보이는 ‘동명사 +명사’ 구조가 아닌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정희(1987)의 연구도 한영균(1984)과 동일하게 ‘체언+의문첨사 ‘-가/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강정희(1987)는 이 방언의 문법 체계에서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고 있는 인과, 조건전제의 접속어미 ‘-메 -네 -그네’의 ‘-ㄱ, -ㄴ’과 종결법 어미 안의 동작, 상 표시의 선어말 어미에 분포되어 있는 ‘-암/엄 시’의 ‘-ㄱ’과 이에 대립되는 완료상 표시가 없는 ‘-아/어시’의 기저형을 ‘-안/언 시’로 설정하여 각각 상이한 범주에 분포되어 있는 ‘-ㄴ, -ㄱ’이 서로 동일한 통사 기능, 즉 기원적 동명사 어미임을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은 완료 표시 ‘-ㄴ’이 표면구조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시상 표시의 잉여성’으로 인한 현상임을 설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하겠다.

- 1) 무시거 잡음고?
- 2) 무시거 잡암디?  
(무엇을 잡고 있는가?)

또한 이 연구에서 (1) (2)의 의문문에서 (2)의 '-디를 (1)의 의문 첨사'-고'와 병행해서 분석하여 남는 '잡암'을 동명사 형이라고 하여 (2)의 의문문의 구조를 명사문의 흔적을 가진 (1)과 같이 '동명사 + 명사'의 구조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명사문 (1)의 '잡음'과 동사문 (2)의 '잡암-'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위하여 동사문 (2)의 '잡암디'를 '잡 -아 + ㅁ # 디'으로 분석하여 '-ㅁ'을 (1)의 동명사 어미 '-ㅁ'과 동일한 형태소라 하고 '잡암'의 '-ㅁ'은 통합형 선어말 어미에 관여하게 되면서 '명사화'의 기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시상' 기능이 강화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예문 I-IV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방언의 동명사 어미 '-ㄴ, -ㅁ'이 관여하는 동명사 구문의 변화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방법으로 우리는 문법화 이론을 채택할 것이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방언의 동명사 어미들의 공시적 현상인 '탈 범주화'가 '느슨한 병렬(Loose parataxis) → 짝 짜인 통사(Tight syntax) 구조로의 방향(Givon, 1979 :207-14)으로서 국어사적 통사 구조 변화의 방향과 동일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방언 자료는<sup>5)</sup> 강정희(2002)와 진성기(1976, 2008)의 자연

---

5) 익명의 심사자가 이 방언의 자료를 옛 문헌에서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방언 자료들 중 자연 발화, 구술 발화 자료가 남아 있는 옛 문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써 답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방언의 경우 문헌 자료는 타 지역 방언에 비해서 거의 없는 점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대상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과정을 국어사 연구에서처럼 문헌어를 근거로 해서

발화와 구술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최근 필자가 채록한 자연 발화와 민요 자료들을 추가한다. 강정희(2002)는 제일동포 1세 집단인 70대 이상의 토박이 화자들의 자연 발화에서 채록한 것이며 진성기(1976, 2008)은 1950년대 후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60대 이상의 화자들의 구술 발화 자료다. 최근에 출판된 진성기(2008)은 진성기(1976)의 시기와 동일한 자료로서 이 자료들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한 점이 진성기(1976)와 다른 점이다.

우리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연구 대상인 다음의 예문 I-IV 그룹들에서 동명사 어미 ‘-ㄴ, -ㄹ’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 I. 1) A : 오십, 밥 먹게.(오게, 밥 먹자)  
 B : ㄹ 먹언 옴이우다.(곧 먹고 오는 길이우다.)  
 A : 먹고대고 영 오십겐(먹구대나 이리 오게)  
 B : 기렵지 아니호우다.((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운금,1975)
- 2) (가이) 어드레 간?/무사 간?  
 3) ① 그게 무슨 말고?/이거 누게 거고?  
 ② 할루산이 곧은 낭기 엇일 말가(민요)  
 (한라산에 곧은 나무가 없단 말인가)  
 ③ 이거 느 것가?  
 4) 어드레 감고?/무사 감고?
- II. 1) ① 이거 누게 거라? 나 거라.  
 (이거 누구 것이니? 내 것이야)  
 ② 어드레 감이라? 성내 감이라  
 ③ 어명 살미과? 죽음 반 삶 반 헝명 살미라./살암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죽기 반 살기 반으로 산다.)  
 ④ 무시거 히메/멘? 나 공부히메/멘.  
 (뭐 하고 있어? 나 공부하고 있어)
- III. 1) 이디 오란 감 시작호난(강, 2002)  
 (여기 (오사카) 왔다 가기 시작하니까)

---

연구할 수 없는 것이 이 방언의 문법사 연구라고 생각한다.

- 2) 가이신디 말차트 것 흘목을 꼭 심언 이시 렌 해뒤그네 간 오난 (강, 2006)  
(그 아이한테 막내 손목을 꼭 잡고 있으라고 해두고 갔다 오니까)
- 3) 아자두서? 아자둘서(앉아있으면서)

- IV. 1) 아방 곧기 진이 가도 될 거주만 곶을 후제 간(강, 2002)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가도 될 테지만 말한 후에 가서)
- 2) 숨이 안 떨어짚/진 뿐이주, 죽음이나 매 한 가지랏주.(강, 2002)  
(숨이 안 떨어진 것뿐/졌을 뿐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였어)
  - 3) 경현/허는 따문/때문에 우리가 이디 온 거라.(강, 2002)  
(그렇게 했기/하는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라)
  - 4) ① 종애가 아플은 무사 경 아플광,(강, 2002)  
(아프기는 왜 그리 아팠는지.)
  - ② ㄴ새로 ㄴ심/그침배끼 더 해여.(강, 2002)  
(가위로 자를밖에/자르기 밖에)

앞에 제시한 I-IV 그룹의 자료는 국어사의 통사 구조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필자가 채록한 주로 70대 이상의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나 구술 발화에서 채록된 것들(I의 2)는 제외)에서 ‘-ㄴ, -ㄹ’ 구문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다

I-IV의 예문들은 동일 연배 집단이라 하더라도 현재 제주방언권 안에서 도 서귀포, 제주시와 같이 이미 도시화 된 지역의 노년층에서는 발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들이다. 앞의 도시화된 지역의 노년층 집단에서는 오히려 I-IV에 대응하는 ‘-기’나 ‘-ㄴ 것’의 발화 빈도수가 높게 채록된다. 이와 같이 동일 방언권에서 동일 세대의 지역적 변인에 의한 언어 변이의 분포와 ‘-기, -ㄴ 것’의 유형을 선호하는 젊은 층 집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지역적 변이, 세대 간의 방언 차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사 시각에서는 ‘국어사 속에서 진행 중인 언어의 변화’를 현장 시간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즉 근대국어 시기 이전부터 경험한 동명사 어미 ‘-ㄹ> -기’로 대체되는 통사 구조 변화의 모습을 21세기의 이 방언이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앞에 제시된 방언 자료 I-IV 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I의 1)은 ‘하계’체의 청유형인 이 방언의 여성 말투로서 ‘동사어간-존대법 어미 ‘-시-’ 뒤에 동명사 어미 ‘-ㄹ’이 결합된 동명사 문으로서 고대국어의 명사문 흔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다. 2)는 1)다음 단계의 구조로서 ‘동명사/체언+의문 첨사(-가/고)’구성의 의문문이다. I의 1)-2)의 예들은 중세국어 시기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우리 국어의 ‘명사문에서 동사문으로’의 통사 구조 변화 과정을 유추하게 해준다.

II. 1)①, ②는 각각 체언과 동명사어미 뒤에 ‘- 이다’를 결합한 의문문으로서 I그룹의 예들보다 후기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의 유형들은 이 방언의 ‘하계체’로 서로 친숙한 사이에서 발화 빈도수가 높은 자료다. 동명사 서술어인 ‘살미라’ 유형은 젊은 층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담은 현재 이에 대응하는 동사 서술어인 ‘살암서’로 대체되어 공존하고 있다. ④의 의문문 역시 젊은 여성 집단에서 발화빈도수가 가장 높은 발화다. ‘질문-대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멘’의 ‘-ㄴ’도 ①, ②와 동일하게 동명사 어미에 ‘이다’가 결합된 ‘이여’를 예상하게 해주는 예다. 질문형과 대답형의 서술어부에 동일 형태소로 보이는 ‘-멘’은 억양에 따라서 그 문법 기능이 변별이 된다. 문제의 문장 마지막의 ‘-ㄴ’은 바로 문장을 명사화 하는 동명사 어미 ‘-ㄴ’의 ‘부가명사화’의 모습이다. 이것은 이 방언의 직접, 간접 인용문의 안긴 문장 말미에 결합된 ‘-ㄴ’과 동일한 존재다.

III. 1)은 공통어의 ‘-기 시작하다’ 구문이 이 방언에서는 ‘-음 시작하다’로 발화되는 예로서 젊은 집단에겐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그리고 동명사 ‘감’에 선행하는 동사구 ‘오란’은 기본형이 ‘오라다’로서 이 방언의 ‘오다’의 보수형이며 부동사 어미 ‘-아’에 완료의 상표지 ‘-ㄴ’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여 후행 동작과의 의미관계를 ‘계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2)는 1)보다 두 동작의 계기성이 더 밀접해서 ‘손목을 잡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미로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후행 동사인 ‘시다’(有)의 의미가 반영되어 ‘심인 시다 → 심어시다’로 접속문의 두 개의 동사구가 하나의 동사로 통합되는 문법화 과정을 달리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6)</sup>

6) 선어말 어미 안에서의 동작상 표지인 ‘-ㄴ’의 생략현상에 대한 논의는 강정희

IV의 1)의 의존명사 혹은 조사와 시간명사에 통합하고 있는 동명사 형들인 ‘떨어짐/진 뵈’, ‘죽음’과 2)의 ‘경험/허는 따문/때문에’와 3)의 ‘끓음 후제’는 각각 ‘-니 것’, ‘-르 뵈’와 ‘-기 때문’ 그리고 ‘-니 후’의 관형 구조로 바뀔 때 더 자연스러운 이 방언의 보수형 집단의 발화다. 이 예들에서 우리는 ‘명사화 구문’ > ‘관형화 구문’으로의 변화를 암시받게 된다.

4) ①은 현대국어로는 ‘아프기는 왜 그렇게 아팠는지’로 발화되는 동족 목적어 서술어인데, 이 방언의 노년층 집단에서는 문장 구조가 ‘[아픔을 아픔]NP+광’(접속 조사)으로써 동명사 구문으로 발화하고 있다. ③은 현대국어에서 체언에 후접하는 특수 조사 ‘밖에’의 방언형 앞에 동명사가 오는 예다. 이 표현은 ‘-르밖에’에 의미 대응하는 것으로서 현대국어의 공통어에서는 듣기 어려운 발화다.

#### 4.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3장에서는 이 방언의 연구 대상인 동명사 구문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문법화의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차례로 살펴되면서 이 방언의 통사 구조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기로 한다.

##### 4.1. 동명사 서술어 유형

- I. 1) A : 오실, 밥 먹게.(오게, 밥 먹자)  
 B : ㄹ 먹언 은이우다.(곧 먹고 오는 길이우다.)  
 A : 먹고대고 영 오실겐(먹구대나 이리 오게)  
 B : 기렵지 아니후우다.((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운금, 1975)
- 2) (가이)어드레 갠?/무사 갠?  
 ( 그 아이 어디로/왜 갔니?)

---

(1987) 참조.

1) 2)는 서술어가 ‘-ㅁ, (1) -ㄴ’ (2) 동명사로 청유와 의문을 수행하는 동명사 구문으로서 고대국어가 명사문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현대 제주방언의 산구어 자료다. 1)은 이 방언의 중년층 이상의 여성 말투로서 권유자인 A1의 ‘오심’이 ‘오-시+ㅁ’으로 분석되어 ‘동사 어간-존대법+동명사 어미’로 이루어진 동명사 구문으로 청유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의 권유에 대한 대답인 B1의 ‘옵이우다’는 현대 제주방언 동사 서술어인 ‘옵수다’에 대응하는 ‘동명사+이우다’ 구성이다. 이 대답을 현대국어로 대체해보면 ‘??’뚬방 먹고 옵입니다.’로 매우 어색해진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자신의 동작을 표현하는 데도 ‘이다’구문을 활발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화자 자신의 동작을 하나의 ‘사실’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B2의 ‘기렵지 아니ㅎ우다’에서 우리는 중세국어에서 명사화 어미 ‘-디> -기’에 통합하는 ‘기렵지(그립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의 ‘가이 어드레 간? / 무사 간?’은 동년배 사이에 쓰는 평대법의 설명의 문문이다. 2)의 서술어 ‘간?’은 동사 ‘가다’의 부사형 어미 ‘-아-’에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이 결합된 동명사 형이 그대로 의문형으로 쓰인 이 방언의 일반적인 예다. 이것은 “기원적으로 모든 활용형은 동명사형이었으니, 동사의 술어형으로도 동명사형이 그대로 쓰였던 것이다. 따라서 알타이 조어에서 모든 문은 명사문이었다.”(이기문 : 1981, 21)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방언의 접속 어미와 통합형 선어말 어미에 관여하는 ‘-ㄴ’에 대해서는 기원적 동명사라는 점을 간과해왔고 시상의 기능인 ‘지난 일, 완료’의 의미로 해석해왔다.

그것은 이들 ‘-ㅁ, -ㄴ’ 동명사 어미들이 관여하던 동명사문이 동사문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존재와 기능이 퇴색되거나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 4.2. 명사문 / 동명사 + 의문 첨사 ‘가 / 고’ 유형

##### 4.2.1. 명사문 + 의문 첨사 ‘가 / 고’ 유형

이 방언의 의문문에는 알타이 조어의 특징과 고대 국어의 모습인 명사문

과 동명사문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들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1) 명사문, 2) 명사문 +의문 첨사 '가/고', 그리고 3) 동명사 +의문 첨사 '가/고'의 유형을 들 수 있다.

다음에 1) 2)와 3)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본 논의의 이해를 위하여 1)과 2)는 동일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로 한다.

- 1) ① 그게 무슨 말? 이거 누게 거(꺼)?
- ② 이거 느 거(꺼)?
- ③ 할루산이 곧은 낭기 엇일 말?
  
- 2) ①' 그게 무신 말고?/이거 누게 거(꺼)고
- ②' 이거 느 것가?
- ③' 할루산이 곧은 낭기 엇일 말가(민요)
- (한라산에 곧은 나무가 없단 말인가)

1) ①-③는 명사문만으로 의문을 수행하는 유형이며 2)①'-③'는 의문 대명사와 통합하고 있는 보문명사 '말, 것'에 의문 첨사 '-고/가'가 첨가되어 설명, 판단 의문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 둘의 유형은 현재 이 방언에서 공시 태로서 공존하고 있다.

명사문인 1) ①-③과 '명사문+의문 첨사 -가/고'의 유형인 2) ①'-③'의 의문문은 국어사적으로 볼 때는 전 단계인 명사문에서 중세 국어의 동사문으로의 통사 구조상의 문법화를 경험한 후기 단계의 유형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문법화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화자 집단에서 이 두 유형의 발화 빈도수에는 큰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방언 화자들의 이러한 문형선택 태도에 언어 변화 단계-이른 바 보수형과 개신형 등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담화론적 기능이 관련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명사문인 1) ①-③의 의문문은 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근하게 질문하는 반말 체이고, 의문 첨사 '가/고'가 첨가된 2) ①'-③'은 반말 체라는 점에서는 1) ①-③ 과 동일하지만 의문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담화론 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이 방언 화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1), 2)유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곧 명사 중심에서 서술어 중심으로 통사 구조상의 문법화가 곧 담화론에서 통사론으로 진행된다는 문법화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 4.2.2. 동명사+의문 첨사 ‘가/고’ 유형

우리는 4.1의 논의에서 동명사 서술어형으로 의문문을 수행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 예가 다음의 ‘-ㄴ’ 동명사 어미에 의한 동명사 서술어였다.

- 3) ① (가이)어드레 간?/무사 간?  
 (그 아이 어디로/왜 갔니?)  
 ② 무시겨 떡언?  
 ③ 어명 잡안?  
 ④ 어느제 죽언?  
 3) ① 어드레 간가/고?/무사 간가/고?  
 ② 무시겨 떡언가/고?  
 ③ 어명 잡안가/고?  
 ④ 어느제 죽언가/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4.2.1의 예들과 유사한 두 개의 3) 동명사 서술어 3) ‘동명사(가-아-ㄴ)+의문 첨사 ‘-가/고’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 3)의 ‘-ㄴ’ 동명사 서술어형은 쉽게 의문 첨사 ‘-가/고’ 형을 허락한다. 3), 3) ‘는 동작의 일어난 시기와 형태에 대한 의문으로서 ‘-ㄴ’ 동명사 어미가 동명사 어미로서보다는 과거, 완료로 해석되는 시상 범주로 보는 의문문이다.

3)의 의문형 어미 ‘-아/어-ㄴ 가/고’는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이 동명사 문에서 동사문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의문 첨사 ‘-가/고’와 통합 과정을 경험하여 현재 이 방언의 통합형 어미로 탈 범주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은 ‘-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사 어간-아/어-ㄴ’ 동명사 서술어와 파생명사 어미 ‘-ㄴ/음’은 다음의 4.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동명사문 자체만으로는 의문문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4)에서와 같이 의문 첨사 ‘-가/고’와 함께 의문문을 수행한다

- 4) \*①(가이)어드레 값?/무사 값?  
 \*② 무시거 먹업/음?  
 \*③ 어땡 잡얌/음?  
 \*④ 어느제 죽업/음?
- 4) ①(가이)어드레 값가/고?/무사 값가/고?  
 ② 무시거 먹업가/고?/음가/고?  
 ③ 어땡 잡얌가/고?/음가/고?  
 ④ 어느제 죽업가/고?/음가/고?

4.2.2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여 우리는 3)의 ‘-ㄴ’동명사 어미에 의한 동명사 서술어는 의문문을 수행할 수 있으나 4)의 ‘-ㄷ’ 동명사 어미에 의한 서술어는 불가능한 현상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문제를 4.2.1에서 살펴 본 의문첨사 ‘-가/고’ 없이 명사문만으로도 의문문을 수행할 수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명사문이나 명사구 보문은 그 기술 명제나 대상이 어떤 현상이나 동작, 또는 사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확정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의문 첨사의 도움이 없이 명사문 자체로 의문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3)의 ‘-ㄴ’ 동명사 서술어에 의한 동작의 모습인 ‘과거, 완료’는 ‘확정적인 현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의문 첨사없이 의문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ㄷ’ 동명사 어미와 파생명사 어미 ‘-음/ㅁ’ 서술어인 4)의 유형이 의문문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ㄷ’ 동명사 어미와 파생명사 어미의 문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즉 ‘-ㄷ’ 동명사 어미나 파생명사 어미에 의하여 문제의 동사가 명사로의 탈 범주화를 유도하지만 그 문법 범주가 일반 명사와 같이 어휘론적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의문의 대상이 ‘확정적인 존재’인지 또는 ‘동작’인지가 불분

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의 유형들은 의문 첨사 ‘가/고나 통합과정을 거친 후에야 의문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3. 명사문/ 동명사 + ‘이라’ 유형

- 1) ① 그게 무슨 말이라?/이거 노게 거라?  
(대답: ~말이라 나 거라)
- ② 할루산이 곧은 낭기 엇일 말이라(민요)  
(대답: ~ 말이라)
- ③ 이거 느 거라?( 대답: 나 거(라).)  
(이거 누구 것이니? 내 것(이야))
- 2) ① 어드레 값이라? 성내 값이라.  
② 어뎡 살미과? 죽음 반 삶 반 헝명 살미라./살암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죽기 반 살기 반으로 산다)
- 3) 무시거 허메/뎌? 나 공부허메/뎌.  
(뭘 하고 있어? 나 공부하고 있어)

1)-3)은 의문문과 대답문의 서술어는 모두 ‘명사/동명사+ 이라’의 구성을 보는 이 방언의 전형적인 평대법 의문형이다. 1)은 4.2.1에서 살펴 본 명사문 유형이며, 2) 3)은 4.2.2의 4)의 ‘-ㄹ’동명사 어미와 ‘-음/ㅁ’ 파생명사 어미 서술어문 유형으로서 모두 의문 첨사 ‘-가/고’를 허용하던 유형이다

3)은 이 방언의 젊은 여성들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도 동남부 지역에서 발화 빈도수가 높은 평대법 의문문인 부드러운 방언형이다. 3)은 ‘동명사+이라’의 활용형인 ‘동명사+이어’로 수행되는 의문형 ‘~허메’ 형과 문장 말에 ‘-ㄴ’이 결합된 ‘~허멘’의 두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3)의 ‘~허메/허멘’을 분석하면 ‘허-ㅁ+이어> 험이어> 험여> 험예> 험에> 허메?’의 변화 과정을 거친 구성으로, 또한 후자의 ‘~허멘’은 앞의 의문문의 문말에 ‘-ㄴ’이 추가로 결합된 문장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통사 구성은 이 방언의 인용 내포문의 문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방언의 인용 내포문의 문장은 화자의 발화시나 관찰시 기준으로 과거, 완료를 수행하는 인용문이

상위문의 동사구에 통합이 될 때 ‘-ㄴ’을 내포문의 문말에 결합 시킨다. 이러한 통사적 절차에 관하여 한영균(1984, 45-49)은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이 선행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와 문장을 명사화하는 ‘부가명사화’의 결과로 밝힌 바가 있다. 이 방언의 ‘-ㄴ’이 결합된 인용 내포문은 상위 수행 동사를 생략한 명사문의 모습만으로도 전달 및 보고의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문장 말에 ‘-ㄴ’이 결합된 인용 내포문의 통사 구성이 바로 3)의 ‘~허멘’의 구성 과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3)의 ‘~허멘’의 ‘-ㄴ’도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으로서 이 어미의 부가적인 기능인 선행 동사나 구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까지도 명사화 하는 ‘부가명사화’ 기능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이 방언의 접속문의 ‘-ㄴ’계 접속 어미는 그 형태 자체만으로 인용 내포문과 ‘부가명사화’된 문장과 동일한 형태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 방언의 각 문법 범주에 분포되어 있는 동명사 어미 ‘-ㄴ’의 선행 요소들을 명사화하는 기능의 담화론적 효과가 필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언의 문장이 매우 짧고 구 단위로 명사성을 지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형들의 발화 빈도수가 높은 사실에서 우리는 바로 고대국어의 명사문의 흔적이 아직까지 이 방언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4.4. 동명사 어미에서 시상 표지로의 문법화 7)

4.1에서 4.3까지 우리는 이 방언에 남아있는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ㄴ, -ㄹ’이 관여하는 통사 구조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4에서는 이 방언의 접속문의 접속 어미에서 발견되는 동명사 어미 ‘-ㄴ’에 의한 복합동사 형성과정과 통합형 선어말 어미로 탈 범주화 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디 오란 갓 시작호난(강, 2002)

7) 이에 관한 형태론적 설명은 강정희(1987) 참조



- (여기 (오사카) 왔다 가기 시작하니까)  
 2) 가이신디 말차트 것 홀목을 짝 심언 이시렌 해뒤그네 간 오난(강, 2006)  
 (그 아이한테 막내 손목을 짝 잡고 있으라고 해두고 갔다 오니까)  
 3) 아자두서, 아자두서(앉아 있으면서)

1)은 동일 주어라 지는 두 개의 문장 ‘X 왔다, X가 가기 시작했다’가 접속된 접속문으로서 후행문의 서술어의 동명사 형인 ‘감 시작하다’는 ‘가기 시작하다’의 전 단계 형으로서 명사 형 어미 ‘-음/ㅁ이’ ‘-기로 대체 되기 전인 중세국어 형으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1)의 ‘오란 감’은 ‘X 왔다, X가 갔다’라는 연속적인 동작을 기술한 이 방언형이다. 1)의 선행 동사 ‘오란’은 고대국어 형으로서 기본형은 ‘오라다’이다. 이 ‘오라다’가 ‘가다’라는 동작이 있기 전에 완료된 것이므로 동사 어간 ‘오라-ㄴ’으로서 완료 표지의 ‘-ㄴ’을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공시적인 분석으로서 이 방언의 접속 어미와 통합형 선어말 어미에 분포되어있는 ‘-ㄴ’의 기원적 동명사 기능이 간과된 분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시대와 통시대를 아우르는 문법화의 시각에 의하여 1)의 선행 동사구 ‘오라-ㄴ’의 시상 표지 ‘-ㄴ’은 4.1의 동명사 서술어에 의한 의문문에서 밝혀진 동명사 어미와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 1) ‘어느제 오란?(언제 왔니?) > 언제 완?  
 1) “ Q : 어느제 오란 감서?(언제 왔다가 가냐?)  
 A : 벌써 오라간(벌써 왔다갔다.)  
 1) “ ‘떡언 보난( 먹어보난)

그러나 동명사 문에서 동사문으로 문법화를 거치면서 1)의 동명사 서술어 ‘오란’은 1) “의 접속문에서는 선행 동사의 완료된 동작을 표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1) “의 동명사 구인 ‘오란 감’을 연속적인 동작으로 인식할 경우 접속문이 아닌 문자의 서술어로 1) “ A의 ‘오라가다’와 같은 복합동사로 환원이 될 수 있다. 1) “의 ‘떡언 보난’도 ‘떡어보니까’의 기본형인 ‘떡

어보다'로 환원이 된다. 이를 역으로 풀이하면 이 방언의 동작성 복합동사들의 대부분은 기저에는 동명사 어미가 내재해있다는 말이 된다.

1) "와 같은 접속문에서 동사구가 '오라가다'의 복합동사로 형태화(morphologization) 될 때 동명사 어미 '-ㄴ'의 탈락은 문법 기능의 잉여성이 작용된다. 즉 선행동사였던 '오다' 행위가 이미 완료됨을 전제하기 때문에 완료상 표지인 '-ㄴ'은 '문법 기능의 잉여성'이 작용하여 사라지게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의 동사구 '심연 시퀀'도 동일하게 '심연+시다' > '심어시다'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방언의 동일 주어를 가지는 접속문에서 선행동사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어간-아/어-ㄴ'일 경우 후행하는 존재동사 '시다(有)'와 통합하여 복합동사를 이룰 때 '-ㄴ'은 문법 기능의 잉여성으로 인하여 탈락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의 통합형 중지법의 기본형 '-아/어시다'는 '동사 어간-아/어-ㄴ/ㄹ(동명사 어미) +시다(有)'로서 '동명사 +시다(有)'라는 복합동사 모습을 분석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 방언의 '-아/어시다'류의 통합형 어미는 'X-ㄴ/ㄹ 이 있다'라는 문장 통사 구조에서 형태 구조, 즉 상대적으로 덜 느슨하고 덜 의존적인 구조에서 딱 짜이고 의존적인 구조로의 문법화를 겪은 형태로 보게 된다. 이 형태화 과정에서 동명사 어미 '-ㄴ/ㄹ'의 문법 기능의 축소가 수반하게 되어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부차적인 시상 표시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상 표시 기능도 담화론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탈락되어서 완료상의 경우 '-ㄴ'이 표면형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문 3)이 바로 그런 예들 중의 하나이다.

3)은 국어사 자료에서도 발견되는 예로서 이 방언의 '두다(置)'는 부사형 어미 '-어'를 요구하지 않고 곧 바로 '시다'와 통합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 '두다'가 통합하는 3)을 이상의 문법화 과정에 따라서 형태분석하면 '앞-아-ㄴ/ㄹ +두(置)-ㄴ/ㄹ +시다'의 구조로 세 개의 동사가 통합한 형태임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선행 동작 '앞다(앞다)'의 동명사 어미 '-ㄴ/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동명사 구에서 복합동사로의 부분에서 설명한 규칙인 문법 기능의 잉여성이 역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다시 '두다'에 결합된 동명사 어미 '-ㄴ/ㄹ'에도 적용되어서 화자가 발화시 또는 관찰시

현재 ‘앉아있는 모습, 상태’를 완료 시점에 두면 ‘아자두 -ㄴ +서’ > ‘아자두서’로 기저 구조의 완료 표지의 ‘-ㄴ’을 탈락시킨 후 표면 구조인 ‘아자두서’로 실현 한다. 반면에 앉아있는 상태가 발화시 또는 관찰시 지속중이라고 인지하면 미완료의 ‘-ㄴ’을 결합한 ‘아자두-ㄴ +서’ > ‘아자두서’로 발화한다. ‘두다’가 후접하는 대부분의 복합동사들은 3)의 두 표현의 선택과 같이 화자의 언어 표현 선택에 따라서 발화하는 것으로서 의미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상 4.1에서 4.4까지 이 방언의 의문형의 ‘-ㄴ, -ㄷ’ 동명사 구문을 중심으로 통사 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방언의 의문문에서 발견되는 ‘-ㄴ, -ㄷ’ 동명사 서술어의 문법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제주방언의 ‘-ㄴ’ 동명사 서술어의 문법화 단계

‘동명사’ > ‘동명사+ 의문 첨사’ > ‘동명사 + 이다’ > ‘동사 서술어  
(‘-ㄴ’) ‘-ㄴ+가/고’ > ‘-ㄴ+이라’ > ‘동사 어간 아/아 ㅁ시다

그러나 위의 각 단계는 현재 문법화를 완료한 통시태가 아니라 이 방언의 언중들의 세대나 말투에 따라서 서로 대체하며 공존하고 있는 공시태라는 점에서 이 방언의 통사 구조 변화의 방향을 현장 시간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4.5. 의존 명사 구문의 동명사 어미 ‘-ㄴ, -ㄴ’의 변화

- 1) 아빤 ㅁ름/(ㄴ기) 전이 가도 될 거주만, ㄴ음 후제 간(강,2002)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가도 될 테지만 말한 후에 가서)
- 2) 숨이 안 떨어 ㄴ/진 뿐이주, 죽음이나 매 한 가지랏주.(강,2002)  
(숨이 안 떨어진 것뿐/졌을 뿐이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였어)
- 3) 경현/허는 ㅁ문/때문에 우리가 이디 온 거라.(강,2002)  
(그렇게 했기/하는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라)
- 4) ① 종애가 아픈은 무사 경 아플광.(강,2002)  
(아프기는 왜 그리 아팠는지)( 강2002)

- ② ㄹ새로 ㄹ심/그침배끼 더 하여.  
(가위로 자를밖에/자르기 밖에)

1)~4)는 의존명사에 통합하는 동명사 어미 '-ㄴ, -ㄹ'의 통사 기능과 그 구조의 변화 방향을 암시해주는 예들이다.

1)의 '-ㄹ'은 '-기 전'으로, '-ㄹ 후제'는 '-ㄴ 후에'로 후행하는 시간 명사에 따라서 통사 구조가 달라진다. 즉 이 방언에서는 후행하는 시간 명사 '전'은 동명사 어미 '-ㄹ, -기'와 통합하지만 '후제'는 '-기를 허락하지 않고' '-ㄹ, -ㄴ'만 허락한다. 이런 현상은 공통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시간 명사 '후'는 동명사 어미 '-ㄴ'만을 허용하여 명사화 보문의 구성에서 관형화 보문의 모습을 띄게 된다.

2)는 현대국어의 '-ㄴ/는 것뿐, -(ㄴ)다 뿐'으로 3)의 '-ㄴ/는 따윈은' '-(ㄴ)기 때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의 문장 구조는 현대국어공통어로 의미 대응시킨 '떨어진 것뿐/졌을 뿐'과 의존 명사 '뿐'의 문법화와 일치하고 있다. 즉 동명사 형 '떨어짐'은 조사 단계의 '뿐'과의 통합으로, '떨어진'은 의존 명사로서의 '뿐'에 내포된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2)의 '-ㄹ/ㄴ'은 '-ㄹ'은 '뿐'의 구조는 '뿐'의 품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첫째, '뿐'을 의존 명사라고 한다면 선행하는 동명사 어미 '-ㄹ'의 통합은 비문법적이다. 그런데도 이 자료의 제보자들은 '떨어짐/진'을 수의 교체하고 있다.

둘째, '뿐'을 조사로 본다면 동명사 어미 '떨어짐'은 '동명사+조사'의 구성으로서 앞서 논의한 4.2의 단계의 문형으로서 문법적이다. 반면에 '떨어진'은 관형형 어미 '-ㄴ'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떨어진'을 비문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떨어진' 구조가 문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떨어진'의 관형형 어미 '-ㄴ'도 선행 요소를 명사화해주는 기원적 동명사 어미 '-ㄹ'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법은 공식적인 시각에서 의존 명사 '뿐'의 문법화 과

정인 ‘의존 명사’ 조사’로의 방향에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는 ‘떨어짐/떨어  
진뿐’을 동명사 어미 ‘-ㄱ/ㄴ’에 조사와 의존 명사 ‘뿐’이 통합된 동명사 문으  
로 보되, ‘뿐’이 의존 명사와 조사로서의 문법화의 층위 현상에서 오는 통사  
구조의 간섭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즉, 이 둘의 구조는 동명사 문이 관형화  
구조로 문법화를 겪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명사화 기능이 강한 ‘-ㄱ뿐’ 구조는  
‘-ㄴ 것뿐’으로 대체되지만 ‘-ㄴ뿐<sup>8)</sup>’의 ‘-ㄴ’은 이미 중세 국어 이전 시기에  
동사문의 하나인 관형화의 과정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들은 ‘-ㄴ’  
의 명사화 기능과 관형화 기능 이 둘을 혼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IV. 2)의 ‘안 떨어짐 뿐’은 ‘-진 것뿐’으로, ‘안 떨어진 뿐’은  
‘-졌을 뿐’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서 ‘-ㄱ뿐’은 어떤 현상 행위가 이루어졌거  
나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문제 삼고, ‘-ㄴ뿐’은 완료의 ‘-ㄴ/았/  
었을’로 대체되는 통사 절차에 의거하여 상 표시와 관형화의 기능이 강화되  
었음을 알게 된다. 현재 이 방언의 통합형 선어말 어미 안에서 시상 표시로  
기능하는 ‘-ㄱ/ㄴ’이 바로 동명사 어미에서 상 표시 기능으로 탈 범주화한  
예인데 기존 연구들이 ‘-ㄱ’에 ‘미완료, 진행, 지속’, ‘-ㄴ’에 ‘완료’로 보는 것은  
앞의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3) ‘경험/허는 따문/때문에’는 현대 국어에서 ‘-기 때문’으로만 대체되는  
의존 명사 ‘따문’의 의미 제약으로 ‘완료’와 ‘진행’의 관형형 어미 ‘-ㄴ/는’만을  
허락하는 관형화 구조이다. 이 구조는 현대국어의 시각에서 이 방언은 ‘관형화  
구조’ 명사화 구조의 변화로서 국어 문법사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방언의 ‘경험/허는 따문/때문에’의  
관형화 구조는 이른 시기의 ‘동명사+의존 명사’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서 ‘-ㄴ  
/는 따문’ ‘-기 때문’ 명사화로 대체되기 이전 단계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ㄴ 따문’ ‘-기 따문’ 변화는 관형화 보문 구조에  
의한 표현이 명사화 보문 구조로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ㄴ’이 ‘-ㄱ’과

8) 현대국어에서 의존 명사 ‘뿐’은 ‘-ㄴ 뿐’으로 관형형 어미 ‘-ㄴ’의 통합만 허락하는  
이른 바 접어와 문장 상당 어구를 관형화하는, ‘시간만 보냈다 뿐이자’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로 조사의 기능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기’와 동일한 동명사 어미라고 보아야만 이 방언의 동명사 보문 구조의 문법화 방향 또한 국어사의 일반적인 문법 변화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 4) ① 종애가 아픔은 무사 경/영 아픔광,  
 (다리가 아프기는 왜 그렇게/이렇게 아팠는지/아픈지/아팠거  
 니와/아프거니와.)

4) ①의 서술어들은 현대국어의 ‘-기’ 명사화와 용언 서술어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 방언의 동명사 문이다. 4)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 즉 ‘N가 V 어간-ㄱ+은 무사 (경/영) V어간-ㄱ+광’으로 매우 간단한 구조로 나타난다. 이 방언의 5)의 유형들은 화자 자신이 바라지 않는 자신의 신체적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정도를 지나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의구심, 느낌, 탄식’을 간접화하는 방백의 성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발화 빈도수가 매우 높다. 4) ①은 서술절의 서술어가 용언 서술어가 아닌 ‘ㄱ’ 동명사형인 ‘아픔+광’으로서 ‘동명사+접속 조사’인 명사구로 이루어져있다.<sup>9)</sup> 그래서 우리는 4) ①을 4) ①과 같이 현대국어의 [다리가 아프다]s1. (그런데 그) [아프기가 아프다]s2’라는 두 개의 동사 서술어문이 접속된 문장으로 재분석해 보기로 한다.

- 4) ① 종애의 아픔(다리가 아프다)  
 아픔이 아픔(아프기가 아프다)

현대국어에서 동명사 어미 ‘-ㄱ’에 의한 ‘다리가 아픔’보다는 동명사 어미 ‘-기’에 의한 ‘다리가 아프기’가 더 자연스러운 사실에 비추볼 때 4) ①의 ‘-ㄱ’ 동명사 ‘아픔’은 형태상 현대국어의 파생명사와 동일하지만 이 방언의 문장

9) 제주방언의 이와 동일한 예들은 매우 많다. 몇 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하르방은 쟁길 지연 가는데 배픈 무사 경 뺨광!(진,2008: 182)  
 (할아버지가 쟁길을 지고 가는데 무겁기는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ㄴ. 뚝은 무사 경 남광! 질픈 무사 영 집광!(길기는 왜 이리 긴지.) 등

안에서의 분포로 볼 때는 동명사 어미 ‘-기’로 대체되기 전 단계의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4) ①의 기본 구조인 ‘(다리의) 아픔이 아픔’은 곧 ‘주어-서술어’가 ‘동명사/파생명사 동명사’로서 동명사로만 배열된 매우 단순하며 구성성분 간에 의존성이 덜한 병렬구조 단계의 국어 모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단순한 구조인 4) ①의 동명사문 유형들은 4) ①과 같이 동명사 서술어에 ‘이다’를 결합하는 4.3에서 살펴 본 ‘동명사+이라’의 단계로 통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4) ① ① 종애가 아픔은 무사 경/영 아픔광→종애가 아픔은 무사 경 아픔이라.

4) ② ㄹ새로 ㄹ심/그침베끼 더 헤여.

(가위로 자를 수밖에/자르기 밖에/자를밖에)

4) ②의 서술부의 ‘ㄹ심’은 ‘ㄹ새(가위)를 동족 명사로 요구하는 동족 서술어로서 원형은 ‘꺾다’ ㄹ스다’이다. 4) ②의 ‘ㄹ새로 ㄹ심베끼’의 서술어는 ‘ㄹ심(동명사)+베끼(보조사)’로서 현대국어의 일반 명사 ‘뱀’이 관형화 보문 구조를 이루는 보문 명사에서 한 단계 문법화를 더 경험하는 ‘-르’를 선행 숙주로 하는 ‘-르밖에’의 접어화 단계로까지의 의미로 대체된다. 그러나 통사구조는 근대국어 시기의 ‘-고’ -기 명사화’ 단계 이전의 5)와 동일하게 동명사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IV 그룹의 관형화 구조로 보이는 이 방언의 ‘-ㄹ 뿐/따문’ 구조를 중심으로 이 방언의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 방언의 공시태로서의 ‘-ㄹ 뿐/따문’ 이 현대국어의 ‘-고’ -기’로 대체된 구조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 동명사 어미와 동일하게 ‘-ㄹ’도 기원적 동명사로 보아야 하는 사실이다. 둘째 이 방언의 4) ①, ②예들과 같은 동명사 서술어 ‘동명사(-고)+조사’의 간단한 구조의 발화 빈도수가 높은 사실은 이 방언의 통사 구조의 변화가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고’ -기 명사화’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방언의 ‘-ㄹ’ 동명사 구문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국어 문법사에

서와 마찬가지로 ‘-ㄷ’ 동명사 어미나 명사 파생 어미의 경우 자신보다 후대에 나타난 동명사 어미 ‘-기(-디) -기)’로 대체되는 시기의 언어라는 데에 있음도 알게 되었다.

## 5.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제주방언의 동명사 구문의 변화 과정을 문법화의 이론으로 국어 문법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방언은 동명사 어미 ‘-기’보다 이에 대응하는 ‘-ㄷ’의 발화 빈도수가 현대 국어의 공통어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방언적 현상은 곧 이 방언은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ㄷ > -기 명사화’의 단계와 그 이전 단계를 동시에 관찰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둘째, 이 방언의 병렬문에 분포되어 있는 ‘-ㄷ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과정은 서술어가 가장 단순한 ‘동명사 > 동명사+의문 첨사 > 동명사+이라 > 동사 서술어문’의 방향으로 문장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셋째, 이 방언의 접속 어미나 선어말 어미 체계 내에서 시상 표지 기능을 하는 ‘-ㄷ’과 ‘-ㄴ’은 기원적 동명사 어미의 탈 범주화 결과다.

넷째, 의존 명사 ‘뿐, 때문’에 관형절을 이끄는 ‘-ㄴ’은 ‘-ㄷ 뿐 > -기 뿐’으로 대체되는 통사 구조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ㄷ’과 동일한 동명사 어미로 보아야 한다. ‘-ㄴ’이 동명사 어미라는 확신은 이 방언의 복합어 구성 방식에서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ㄴ 뿐/따문’의 통사 구조는 ‘동명사+의존 명사’임을 알게 된다.

다섯째, 이 방언의 동명사 어미 ‘-ㄷ’은 ‘-ㄷ > -기 명사화’로, ‘-ㄴ’은 보문명사에 의한 내포문에서 관형절을 이끌면서 ‘명사화 > 관형화’로 범주를 이탈하게 됨에 따라 명사화의 기능을 잃고 시상 표지 기능이 강화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방언의 통사 구조의 변화 방향도 국어 문법사와 동일한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 참고문헌

강정희(1982), 「제주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11, 국어학회, 84-94쪽.  
 강정희(1987a), 「제주방언 동작성 어미와 접속 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84-94쪽.  
 강정희(1987b), 「제주방언의 명사류 어미의 한 종류 ‘-(이)랑’에 대하여」, 『한남어문학』 13집, 한남어문학회, 722-30쪽.  
 권재일(1998), 「문법변화와 문법화」,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879-903쪽.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운금(1975), 『제주도 사투리』, 박문사.  
 이정애(1998), 「가지고의 문법화 과정」, 『언어』 제 23권 1호, 한국언어학회, 87-110쪽.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정재영(1996), 『依存名詞 ‘ㄷ’의 문법화』, 국어학회, 태학사.  
 진성기(1976), 『濟州道民譚』, 제주민속연구소.  
 진성기(2008), 『제주도 옛말사전』, 제주민속연구소.  
 이현규(1995), 『국어 형태변화의 원리』, 영남대 출판부.  
 한영균(1984), 「濟州方言 動名詞 語尾의 統辭機能」, 『국어학』 13, 국어학회, 229-52쪽.  
 Mc. MAHON April M.S.(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Hopper and Traugott(1994),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Joan Bybee, Revere Dedicins and William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Chap. I.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lmy Givo'n(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New York.

□ 이 논문은 2008년 6월 15일 접수되고  
 2008년 8월 10일 심사완료되어  
 2008년 8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Grammaticalization of the Syntax of  
Nominalizations in Jeju Dialect

Jeong-hui,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e process of syntax of nominalizer '-m, -n' of Jeju dialect in terms of grammaticalization.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

The first, this dialect is that the production '-m' is higher nominalizer '-ki' compared with modern Korean. This such a dialectal fact makes us observe the step of nominalization in the middle Korean period and the former step at once.

The second, there are four steps of grammaticalization, that is morphologization of '-m' nominalizer in this dialect as below. 'V-m'(nominal sentence)>>V-m(nominal sentence)+ka/ko(question)>>V-m(nominal sentence)+'ida'> Verb predicate(verbal sentence).

The third, '-m and '-n which are doing function of tense - aspect marker in the system of conjunctive ending and pre-final endings in this dialect is proto-nominalizer.

The fourth, in relativization of the bound noun 'ppun/ ttamun', '-n' nominalizer is same as '-m' nominalizer. Therefore, the syntactic structure of '-n' 'ppun/ ttamun' can be shown as nominalizer+ bound noun.

The fifth, '-m' which is distributed in interrogative, pre-final endings and the bound noun sentence is proto-nominalizer in an ancient Koran. Therefore,

'-n'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 proto-nominalizer. If those probabilities become true, the structure of '-m/n ttamun/ppun' in this dialect might be considered 'nominalizer +partical also'.

Key Words : Grammaticalization, Relativization, '-m/n' Nominalizer, Morphologization, Proto-nominalizer, Nominalizer +partical

K C I